레드 훅의 공포

The Horror at Red Hook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Horror at Red Hook" (Weird Tales 1927년 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296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작품에는 1920년대 당시 작가의 이민자·인종에 대한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이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료로서 원문을 옮겼을 뿐,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악몽 같은 무리는 기괴하고 벌거벗은 채 인광을 내뿜는 존재를 따라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다. 그 끔찍한 존재는 이제 오만한 걸음걸이로 당당히 나아갔으며, 품에는 눈이 유리알처럼 흐릿해진 비대한 노인의 시체를 안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성사뿐만 아니라 악한 성사 또한 존재한다. 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움직인다고 믿는다. 그곳은 동굴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황혼 속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인류가 때로는 진화의 궤도를 역행하여 퇴보할 가능성도 있으며, 나는 그 끔찍한 비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는다."

—아서 매켄

불과 몇 주 전, 로드아일랜드주 파스코액 마을의 어느 길모퉁이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체격이 건장하고 인상도 건실해 보이던 한 행인이 보여준 돌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그는 체파첫에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오던 중이었다. 그러다 마을의 밀집된 구역에 다다르자, 소박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제법 도시 분위기가 풍기는 왼쪽 대로로 방향을 틀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아무런 전조도 없이 경악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눈앞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을 향해 잠시 기묘한 눈빛으로 응시하더니, 이내 공포에 질려 히스테릭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다음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을 때, 그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신체적으로 다친 곳도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신경쇠약 증세도 씻은 듯이 나아 보였다. 그는 자신이 겪은 극심한 피로 때문이라며 수치스러운 듯 변명을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체파첸 도로를 따라 되돌아갔다. 그는 뒤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토록 건장하고 늠름하며 평범한 인상을 가진, 능력 있어 보이는 남성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를 지켜보던 행인 중 한 명이, 그가 체파첸 외곽에 사는 유명한 낙농업자의 하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한마디 거들면서 그 기묘함은 더욱 짙어졌다.

그의 정체는 뉴욕 경찰 형사 토머스 F. 멀론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근 겪은 어느 참혹한 사건의 여파로, 장기 요양 중이었다. 사고로 인해 극적으로 변해버린 그 사건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혹한 업무를 안겨주었다. 당시 멀론이 참여했던 급습 작전 도중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죄수들과 동료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그 참상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결과, 그는 무너진 건물들과 조금이라도 닮은 건축물만 보아도 극심하고 기이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결국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에게 당분간 그런 건물들을 절대 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체파첫에 친척이 있는 한 경찰 소속 의사(경찰의)는 나무로 지은 식민지풍 가옥들이 늘어선 그 기묘한 마을을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이상적

인 장소로 추천했다. 멀론은 그곳으로 떠나며, 이후 자신과 연결된 운소켓의 전문의로부터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큰 마을의 벽돌 거리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잡지를 사기 위해 파스코액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수였다. 환자는 자신의 불복종에 대한 대가로 극심한 공포와 타박상, 그리고 굴욕을 치러야만 했다.

체파첫과 파스코액의 수다스러운 이들이 아는 것은 딱 그 정도였다. 가장 박식한 전문가들이 믿는 바 또한 그 정도에 불과했다. 사실 멀론은 처음에 전문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으나, 돌아오는 것이 오직 완전한 불신뿐임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그는 침묵을 지켰다. 브루클린 레드 훅 지역의 지저분한 벽돌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여파로 용맹한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그의 신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세간의 공통된 의견이 되었을 때도 그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무질서와 폭력의 소굴을 소탕하려다 너무 무리했다고 말했다. 양심적으로 보아도 그곳의 몇몇 모습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비극은 그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를 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설명이었다. 멀론은 결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히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상상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공포—태고의 세계에서 끌려 나온 악으로 문둥병과 암에 잠식된 듯한 집과 거리와 도시들에 대한 공포—를 암시해 보았자, 편안한 휴양 대신 정신병원 독방을 얻게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멀론은 신비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켈트족 특유의 기이하고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보는 원대한 시야를 지녔으면서도, 겉보기에 설득력 없는 것들을 단번에 간파하는 논리적인 눈을 동시에 가졌다. 이러한 기질의 결합은 지난 42년 동안 그를 먼 곳으로 이끌었고, 피닉스 파크 인근의 조지 왕조 양식 빌라에서 태어난 더블린 대학교 출신 신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낯선 곳들로 그를 몰아넣었다.

이제 자신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되짚어보며, 멀론은 그 비밀을 가슴 속에만 묻어두기로 했다. 용맹한 전사조차 벌벌 떠는 신경쇠약자로 전락시키고, 낡은 벽돌 슬럼가와 어둡고 기묘한 얼굴들이 파도치는 바다를 악몽과 불길한 전조로 뒤바꿔버린 그 실체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감각을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뉴욕의 온갖 언어가 뒤섞인 지하 세계라는 심연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행위 자체가, 이미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불결한 시대의 온갖 찌꺼기들이 모여 독기를 내뿜고 추잡한 공포를 이어가는 이 독약 솥 같은 곳에서, 예민한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고대의 마술과 기괴한 경이로움을 평범한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탐욕이 들끓고 속으로는 신성모독이 넘실거리는 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멀론은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지옥의 초록빛 불꽃을 목격했다. 그가 경찰 업무의 일환으로 벌인 이 실험을 주변의 뉴욕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때도, 그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재치 있고 냉소적이었다. 그들은 멀론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를 좇는 것을 두고 황당한 짓이라며 조롱했고, 요즘 뉴욕에는 저속함과 천박함 말고는 남은 것이 없다고 장담했다. 그중 한 명은 멀론이 《더블린 리뷰》에 날카로운 글들을 기고해온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밑바닥 삶을 다룬 진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조차 한 편 써내지 못할 것이라며 거액의 내기까지 걸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우주적인 아이러니가 그 예언자의 말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경박한 의미를 은밀히 부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엿본 그 공포는 결코 이야기가 될 수 없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독일 문헌에 인용된 책처럼, "er lässt sich nicht lesen"—그것은 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그것은 1927년 11월 11일, 브루클린의 레드 훅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날 밤, 토머스 멀론은 레드 훅의 그 불길하고도 기괴한 거리들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인간의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마치 지옥의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부패한 바다 냄새와 정체 모를 향료의 악취가 뒤섞여 감돌았다.

멀론은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나 빈곤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의 근간

을 뒤흔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레드 훅의 어둠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그 어둠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말이다.

멀론에게 존재의 이면에 잠긴 신비는 언제나 곁에 머물러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만물에 깃든 숨겨진 아름다움과 황홀경을 느끼며 시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난과 슬픔, 그리고 유랑의 삶은 그의 시선을 더 어두운 곳으로 돌려놓았다. 그는 세상 곳곳에 도사린 악의 징후를 마주할 때마다 전율했다. 그에게 일상이란 기괴한 그림자들이 뒤섞인 환상곡과 같았다. 때로는 오브리 비어즐리의 화풍처럼 겉으로는 번뜩이며 조롱하는 듯하나 그 속에는 부패한 본질을 감추고 있었고, 때로는 귀스타브 도레의 섬세한 작품처럼 지극히 평범한 형상과 사물 뒤에 공포를 암시하고 있었다.

멀론은 지적 수준이 높은 이들이 심오한 신비에 대해 조롱을 보낸다는 사실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곤 했다. 만약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이 고대의 미천한 이교도들이 간직해 온 비밀과 온전히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이상 현상이 세상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색은 분명 병적인 것이었으나, 예리한 논리와 깊은 유머 감각이 이를 적절히 상쇄해주었다. 멀론은 자신의 관념들이 그저 살짝 엿보이는 금기된 환상으로 남아, 가볍게 유희하는 수준에 머물기를 바랐다. 히스테리가 그를 덮친 것은 오직 의무라는 이름 아래, 도저히 피

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고도 교활한 계시의 지옥 속으로 그를 내던졌을 때뿐이었다.

그가 레드 훅 사건을 접했을 때, 그는 이미 브루클린의 버틀러 스트리트 관할 구역에 배치된 상태였다. 레드 훅은 거버너스 섬 맞은편, 오래된 해안가 근처에 자리 잡은 기괴하고 불결한 미로 같은 곳이다. 부두에서 언덕 위로 이어지는 지저분한 도로들은 클린턴가와 코트가 끝자락을 지나 보로 홀로 향한다. 그곳은 낡고 부식된 거리들이 뻗어 있다. 이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벽돌집들인데, 구석진 골목이나 샛길 중 일부는 흔히 말하는 '디킨스풍'의 매혹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이곳의 인구 구성은 절망적일 만큼 뒤섞여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 시리아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흑인들이 서로 뒤엉켜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는 스칸디나비아인과 미국인 거주 구역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레드 훅은 소음과 오물이 뒤섞인 바벨의 탑과 같다. 기름진 파도가 때리는 지저분한 부두의 물결 소리와 항구 경적의 거대한 오르간 연주 같은 소음 사이로, 이곳에서는 기이한 비명들이 울려 퍼진다.

오래전 이곳은 지금과는 다른 밝은 모습이었다. 낮은 지대의 거리에는 눈빛이 맑은 선원들이 드나들었고, 언덕을 따라 늘어선 커다란 저택들은 품격과 풍요로움을 간직한 집들이었다. 건물들의 정돈된 형태나 가끔 보이는 우아한 교회들, 그리고 곳곳에 남은 세밀한 흔적들을 보면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짐작할 수 있다. 닳아버린 계단, 찌그러진 문

틀, 벌레 먹은 장식 기둥, 혹은 휘어지고 녹슨 철제 난간이 남은 작은 녹지 조각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다. 집들은 대개 견고한 블록을 이루고 있으며, 가끔 솟아오른 창문 많은 큐폴라(cupola)들은 선장과 선주들이 거주하며 바다를 지켜보던 시절을 증언하고 있다.

물질과 정신이 뒤섞여 썩어 문드러진 이 소굴에서는, 수백 가지 언어로 된 신성모독의 외침이 하늘을 향해 쏟아져 나온다. 거리와 대로에는 배회하는 무리가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비틀거리고, 이따금 은밀한 손길이 나타나 갑자기 불을 끄거나 커튼을 쳐 내린다. 구경꾼들이 조심스레 길을 지나갈 때면, 창가에 머물던 검고 곰보 자국 가득한 얼굴들이 황급히 사라지곤 한다. 경찰들은 질서를 세우거나 이 구역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이미 포기했다. 그들은 그저 외부 세계가 이 오염된 기운에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세우는 데 급급할 뿐이다.

순찰대의 금속성 소음은 유령 같은 침묵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다. 붙잡힌 죄수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 눈에 띄는 범죄 양상은 이곳의 방언만큼이나 다양하다. 럼주 밀수나 금지된 외국인의 유입부터, 온갖 무법 행위와 정체 모를 악습,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살인과 신체 훼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 눈에 보이는 범죄가 이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동네의 명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은폐하는 능력이 그 자체로 칭송받아야 할 기술이라면 모를까 말이다. 레드 훅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보다 많다. 적어도 육지 쪽을 통해 나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이곳을 떠날 확률이 높다.

멀론은 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비난하고 성직자와 자선가들이 한탄해 마지않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끔찍한 비밀의 악취를 맡았다.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이로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환경에 놓인 현대인들은 일상생활과 의례 속에서, 마치 기이한 힘에 이끌리듯 원시적인 유인원적 야만성의 가장 어두운 본능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인류학자 같은 전율을 느끼며, 새벽녘 어스름 속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눈이 풀리고 곰보 자국이 가득한 젊은이들의 행렬을 종종 지켜보곤 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진했다.

이런 청년들의 무리는 끊임없이 눈에 띄었다. 때로는 길모퉁이에서 음흉한 눈빛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때로는 문간에 서서 저렴한 악기로 기괴한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때로는 구청 근처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멍한 상태로 졸거나 외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때로는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들의 높은 계단 앞에 세워진 칙칙한 택시 주변에서 무언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은 멀론에게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동료 경찰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였다. 멀론은 그들에게서 어떤 괴물 같은 비밀의 연속성을 보고 있는 듯했다. 경찰이 기술적인 세밀함을 갖추어 기록한 그 비루한 사실과 습관, 그리고 거처들의 목록 아래에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악마적이고 은밀하며 고대의 어떤 패턴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심 그들이 충격적이고 원초적인 전통의 계승자임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인류보다 더 오래된 이교의 의식과 제례에서 흘러나온, 타락하고 부서진 파편들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라고 말이다.

그들의 결속력과 명확함이 이를 뒷받침했으며, 그 지저분한 무질서 아래 숨겨진 기묘한 질서 의식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머레이 양의 저서 『서유럽의 마녀 숭배』와 같은 논문들을 헛되이 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까지도 농민들이나 은밀하게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 아리안 세계보다 앞선 어두운 종교에서 유래한 무시무시하고 비밀스러운 집회와 광란의 체계가 분명히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민간 전설 속에서 '검은 미사'나 '마녀의 사바트'로 나타나곤 했다. 고대 투란-아시아의 마법과 다산 숭배가 남긴 이 지옥 같은 흔적들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으리라고는 단 한 순간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실체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최악의 괴담보다 얼마나 더 오래되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더 검게 물들어 있을지 자주 의구심을 품었다.

III

그것은 브루클린의 레드 훅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곳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불길한 구역이다. 그곳에 모여드는 자들은 인종과 국적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그들의 눈빛에는 문명 세계의 도덕이나 질서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그곳의 공기는 썩은 생선 비린내와 정체 모를 악취로 가득 차 있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는 밤마다 기분 나쁜 속삭임이 흘러나온다.

토머스 멀론은 그곳의 어둠 속에 깊숙이 발을 들인 인물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멀론이 마주한 것

은 단순한 범죄나 사회적 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였다.

그가 쫓던 흔적들은 로버트 수이댐이라는 인물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이댐은 겉보기에는 품격 있는 신사였으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고대의 의식과 결탁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멀론은 수이댐이 남긴 단서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의 막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지를 깨닫게 된다.

레드 훅의 그 끔찍한 밤, 멀론은 마침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결코 인간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이 행하는 의식은 우주의 근원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마주한 멀론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토머스 멀론이 레드 훅의 심장부로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바로 로버트 수이댐 사건 때문이었다. 수이댐은 유서 깊은 네덜란드 가문 출신의 학식 높은 은둔자였다. 본래 자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할아버지가 플랫부시에 저택을 지었을 무렵의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넓지만 관리가 허술한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플랫부시는 네덜란드식 묘비가 박힌 철제 울타리와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개혁교회 첨탑을 중심으로, 식민지풍의 아담한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마르텐스 거리에서 떨어진 곳,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마당 끝에 자리 잡은 이 외딴 저택에서 수이댐은 60년 가까이 독서와 사색에 침잠해 왔다. 한 세대 전, 그가 구세계로 항해를 떠나 8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시기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는 하인을 둘 형편이 되지 않았고, 철저한 고독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조차 거의 받지 않았다. 친밀한 우정은 멀리했으며, 드물게 만나는 지인들도 1층에 있는 세 개의 방 중 하나에서만 맞이했다. 그중에서도 그는 유독 한 방을 정갈하게 관리했는데, 그곳은 천장이 높고 광활한 서재였다. 서재의 벽면은 무겁고 고풍스러우며,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기운을 풍기는 낡은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마을이 커지고 결국 브루클린 구역에 편입되는 과정도 수이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수이댐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잊힌 존재가 되어갔다. 노인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가리키곤 했지만, 최근에 유입된 대다수의 주민에게 그는 그저 기묘하고 뚱뚱한 노인일 뿐이었다. 덥수룩한 백발과 거친 수염, 번들거리는 검은 옷에 금색 머리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그저 흥미롭다는 듯 쳐다볼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멀론은 업무상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다만 중세 미신에 관한 진정한 권위자라는 소문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었다. 한때 친구가 기억을 더듬어 인용한 적이 있는, 카발라와 파우스트 전설에 관한 그의 절판된 소책자를 한가로이 찾아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수이댐이 하나의 '사건'이 된 것은, 그의 멀고도 유일한 친척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법적 판결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외부 세계에는 이들의 행동이 갑작스러워 보였으나, 사실 오랜 관찰과 슬픈 논쟁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친척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 근거는 수이댐의 언행에서 나타난 기이한 변화들이었다. 그는 곧 닥쳐올 경이로운 일

들에 대해 광적으로 언급하곤 했으며, 브루클린의 불량한 동네들을 이유 없이 배회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차림새는 점점 더 초라해졌고, 이제는 흡사 떠돌이 거지처럼 돌아다녔다. 수치심을 느낀 친구들은 지하철역에서, 혹은 구청 주변 벤치에서 그를 목격하곤 했다. 그는 그곳에서 검고 험악한 인상의 낯선 무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이댐이 입을 열 때면, 그는 손에 잡힐 듯한 무한한 힘에 대해 횡설수설하거나, "세피로트(Sephiroth)", "아스모데(Ashmodai)", "사마엘(Samael)" 같은 신비로운 이름들을 다 안다는 듯한 음흉한 미소와 함께 반복해서 읊조렸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이댐의 실태가 드러났다. 그는 런던과 파리에서 수입한 기이한 고서들을 사들이느라 수입을 탕진하고 원금까지 축내고 있었다. 또한 그는 레드 훅 지역의 지저분한 반지하 방을 유지하며 거의 매일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불량배와 외국인들이 뒤섞인 기묘한 무리들을 맞이했으며, 비밀스러운 창문의 초록색 블라인드 뒤에서 어떤 의식 같은 것을 거행하는 듯 보였다. 그를 미행하도록 배정된 형사들은 밤마다 벌어지는 의식 사이로 흘러나오는 기괴한 비명과 찬가, 그리고 발을 구르는 소리를 보고했다. 형사들은 그 축축한 지역에서 기괴한 난교가 흔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식에 빠진 이들의 기이한 황홀경과 방종함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심리가 시작되었을 때, 수이댐은 간신히 자유를 지켜냈다. 법정에서 그는 매우 세련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학문 연구와 탐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행동이 기이해지고 말투가 과장되게 변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유럽의 전통에 관한

특정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집단 및 그들의 노래, 민속 무용과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척들이 암시했던 것처럼 저급한 비밀 결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그와 그의 연구를 얼마나 비통할 정도로 얕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이댐은 차분한 설명으로 상황을 역전시켰고, 법원은 그를 아무런 제약 없이 떠나도록 허락했다. 수이댐, 코리어, 반 브런트 가문이 고용했던 사설 탐정들은 체념 섞인 혐오감을 느끼며 철수했다.

연방 조사관들과 경찰, 그리고 멀론이 포함된 합동 수사팀이 이 사건에 개입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 당국은 수이댐의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사설 탐정들의 요청을 받아 도움을 준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이댐의 새로운 동료들이 레드 훅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장악한 가장 악질적이고 잔인한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 중 최소 3분의 1은 절도와 소란, 불법 이민자 밀반입 전과가 있는 상습범들이었다. 사실, 그 노학자의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은 엘리스 섬에서 현명하게 돌려보냈던, 정체도 분류도 불가능한 아시아계 부랑자들을 몰래 상륙시키는 집단이었다.

수이댐이 지하 방을 빌려 쓰던 파커 플레이스(현재는 이름이 바뀌었다)의 북적이는 빈민가에는 매우 기이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눈매가 가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로, 아랍 문자를 사용했지만 애틀랜틱 애비뉴 인근의 시리아인 대다수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들이었다. 신분 증명서가 없으니 모두 추방될 수도 있었으

나, 법 집행은 더디기만 했다. 게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 강제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도 레드 훅을 굳이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 괴물들은 무너져가는 돌 성당에 모여들었다. 수요일이면 그곳은 무도회장으로 변했다. 성당의 고딕 양식 버트레스(buttress)는 부둣가에서 가장 불결한 구역 근처에 솟아 있었다. 브루클린 전역의 성직자들은 그곳의 존재 자체와 정통성을 부정했다. 밤마다 성당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음을 들은 경찰들 역시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 멀론은 성당이 비어 있고 불이 꺼진 밤이면,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오르간에서 끔찍하게 갈라진 저음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했다. 반면, 예배가 진행될 때 눈에 보이는 의식에는 비명과 북소리가 뒤따랐기에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다.

수이댐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의식이 티베트의 샤머니즘이 가미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잔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 사람 대부분이 쿠르디스탄 근처 어딘가에서 유입된 몽골계 혈통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멀론은 쿠르디스탄이 페르시아의 악마 숭배자들의 마지막 생존자인 예지디족의 땅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수이댐의 조사로 인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은 수로 레드 훅에 밀려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세관원이나 항만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해상 음모를 통해 들어와 파커 플레이스를 점령했고, 언덕 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지역의 다른 잡다한 주민들은 이들을

기묘한 동질감으로 반겼다. 뭉툭한 체구와 특유의 곁눈질하는 생김새를 가진 이들이 화려한 미국식 옷차림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은 브루클린 시청 구역의 부랑자들과 떠돌이 갱단 사이에서 점점 더 자주 눈에 띄었다. 결국 이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출처와 직업을 확인하며, 가능하다면 이들을 소탕해 적절한 이민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방 정부와 시 당국의 합의에 따라 멀론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 레드 훅 조사를 시작하며 멀론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의 로버트 수이댐이 숙적이자 대적자로 버티고 있었다.

IV

그것은 아마도 멀론이 겪었던 일의 전말을 보여주는 기록일 것이다. 그가 겪은 일은 단순히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너머의 존재들이 우리 곁에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였다.

멀론은 브루클린의 레드 훅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풍경들을 잊지 못했다. 그곳의 골목마다 스며 있는 악취,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나누던 불길한 속삭임,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결코 인간일 수 없는 존재들의 움직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수이댐의 죽음은 그 거대한 악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존재들이 다시금 이 땅에 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의 의식이었다. 레드 훅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지는 그 기괴한 집회들은,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과 질서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멀론은 그 진실을 마주한 대가로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경찰의 수사 방식은 다양하고도 기발하다. 멀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산책, 세심하게 의도된 일상적인 대화, 적절한 시기에 건네는 술 한 잔, 그리고 겁에 질린 죄수들과 나누는 신중한 문답을 통해,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기 시작한 그 움직임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냈다.

새로 유입된 이들은 분명 쿠르드인이었으나, 그들의 방언은 정밀한 언어학으로도 파악하기 힘들 만큼 모호하고 난해했다. 그들 중 노동을 하는 이들은 주로 부두 노동자나 무허가 행상으로 살았으며, 그리스 식당에서 일하거나 길모퉁이 신문 가판대를 지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눈에 띄는 생계 수단이 없었다. 그들은 밀수나 밀주를 포함하여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범죄 세계의 일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증기선, 아마도 화물선이었을 배를 타고 들어왔다. 달빛조차 없는 밤이면 작은 나룻배에 실려 은밀히 하역되었는데, 배들은 특정 부두 아래로 스며들어 숨겨진 운하를 따라 움직였다. 멀론은 그 운하와 집의 위치를 끝내 찾아낼 수 없었다. 제보자들의 기억은 극도로 혼란스

러웠고, 그들의 언어는 유능한 통역사들조차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왜 체계적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자신들을 찾아내 경로를 지시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힐 만큼 경계심을 늦추는 법도 없었다. 오히려 왜 이곳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마치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부류의 갱단들 역시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다. 멀론이 겨우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라고는, 어떤 신이나 거대한 사제 집단이 그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권능과 초자연적인 영광,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통치권을 약속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수이댐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밤마다 열던 모임에는 낯선 이들과 구역의 노련한 갱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들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은둔자였던 그가 암호를 아는 손님들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로 아파트들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이댐은 결국 집 세 채를 통째로 차지하며, 기괴한 동료들을 그곳에 상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플랫부시의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겉보기에는 책을 가져오거나 돌려주기 위해서만 집을 드나드는 듯했다. 그의 얼굴과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멀론은 그를 두 번이나 찾아가 면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거칠게 거절당했다. 수이댐은 자신은 어떤 신비로운 음모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으며, 쿠르드인들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그들이 무엇

을 원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이 지역 이민자들의 민속학을 방해받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 일이라 주장했다. 경찰이 관여할 정당한 명분도 없는 일이었다.

멀론은 수이댐이 과거에 쓴 카발라와 여러 신화에 관한 소책자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해 보았으나, 노인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수이댐은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꼈고, 방문객을 아주 노골적으로 밀어냈다. 결국 멀론은 불쾌감을 느끼며 물러나 다른 정보원을 찾아 나서야 했다.

멀론이 이 사건을 쉬지 않고 계속 파헤쳤더라면 과연 무엇을 밝혀냈을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시 당국과 연방 정부 사이의 어리석은 권력 다툼 때문에 수사가 몇 달간 중단되었고, 그사이 형사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멀론은 단 한 순간도 흥미를 잃지 않았으며, 로버트 수이댐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뉴욕 전역에 납치와 실종 사건이 몰아치며 공포가 확산되던 바로 그 무렵, 그 지저분하던 학자에게는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그는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 모양을 단정히 한 채, 품격 있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보로 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에게서는 무언가 모호하지만 분명한 개선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는 새로 갖춘 깔끔한 차림새를 꾸준히 유지했고, 눈빛에는 평소에 없던 생기가 돌았으며 말투 또한 명료해졌다. 또한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비대한 몸집도 조금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실제 나이보

다 훨씬 젊어 보였고, 바뀐 모습에 걸맞게 걸음걸이는 탄력적이었으며 태도는 활기찼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왠지 염색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기묘하게 검어졌다.

달이 지나면서 그의 옷차림은 점점 덜 보수적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는 플랫부시에 있는 저택을 개보수하고 새로 꾸며 소수의 친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택을 개방해 연회를 연 뒤, 기억나는 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최근 자신을 통제하려 들었던, 이제는 완전히 용서한 친척들에게도 특별히 환대를 베풀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어떤 이들은 도리 때문에 참석했지만, 모두가 예전 은둔자의 모습에서 피어나는 우아함과 세련미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수이댐은 자신에게 할당된 일의 대부분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 반쯤 잊힌 친구로부터 막 재산을 상속받았기에, 이제는 여유와 안락함, 그리고 식단 관리를 통해 얻은 찬란한 제2의 청춘을 즐기며 남은 생을 보낼 참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드 훅에서 점차 자취를 감췄고, 자신이 태어난 상류 사회에서 점점 더 활발히 활동했다. 한편 경찰들은 갱단들이 파커 플레이스의 지하 아파트 대신 오래된 석조 교회와 무도회장으로 모여들어 춤을 추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비록 파커 플레이스의 아파트와 그 인근 건물들에는 여전히 해로운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후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꽤 벌어져 있었으나, 멀론이 구상하던 사건의 맥락에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하나는 《이글》지에 실린 로버트 수이댐의 약혼 소식이

었다. 그의 약혼녀는 베이사이드 출신의 코넬리아 게릿슨 양으로, 가문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예비 신랑과도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 경찰이 무도회장으로 쓰이는 교회에 급습을 가한 사건이었다. 납치된 아이의 얼굴이 지하 창문 너머로 아주 잠깐 보였다는 제보가 들어온 뒤였다. 멀론도 이 급습에 참여했으며, 내부로 들어가 그곳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조사 당시 건물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예민한 감각을 지닌 켈트인인 멀론은 내부의 여러 요소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조잡하게 그려진 벽면 판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판넬에는 성스러운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으나, 표정만큼은 기묘할 정도로 세속적이고 냉소적이었다. 심지어 어떤 판넬은 일반적인 도덕 관념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파격적인 모습까지 담고 있었다. 또한 그는 강단 위 벽면에 새겨진 그리스어 비문도 불쾌하게 여겼다. 그것은 그가 더블린에서 대학 시절 우연히 접했던 고대의 주문이었다. 그 문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았다.

"오, 밤의 벗이자 동반자여. 개들의 울부짖음과 흘려진 피를 기뻐하며, 무덤 사이 그림자 속을 거니는 자여. 피를 갈망하며 필멸자들에게 공포를 몰고 오는 자여. 고르게, 모르모,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달이여, 우리의 제물을 자비롭게 굽어살피소서!"

그 내용을 읽은 그는 몸서리를 쳤다. 어떤 밤, 교회 지하에서 들려왔던 것 같은 갈라진 베이스 오르간 소리가 막연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단 위에 놓인 금속 대야 가장자리에 슨 녹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그러다 근처 어딘가에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악취가 풍

겨오는 듯하자, 그는 초조하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르간 소리에 대한 기억은 그를 계속 괴롭혔고, 그는 떠나기 전 유독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하실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그에게 몹시 불쾌한 장소였다. 하지만 결국, 그 신성모독적인 판넬과 비문들이 무지한 자들이 저지른 조잡한 낙서에 불과한 것일까?

HEL. HELOYM. SOTHER. EMMANVEL. SABOATH. AGLA. TETRAGRAMMATION. AGYROS. OTHEOS. ISCHYROS. ATHANATOS. IEHOVA. VA. ADONAL. SADY. HOMOVSION. MESSIAS. ESCHEREHEYE.

사방에 원과 오각형의 별 모양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그 기괴한 문양들은 이곳의 불결한 구석에 몰려 사는 자들이 품은 기이한 신념과 열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은 훨씬 더 기묘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진짜 금괴들이 한 더미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 삼베 조각을 대충 덮어놓은 상태였다. 금괴의 번쩍이는 표면에는 벽면을 장식했던 것과 똑같은 기괴한 상형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문마다 쏟아져 나온 눈이 찢어진 동양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저항할 뿐이었다. 경찰은 딱히 잡아낼 만한 것을 찾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철수해야 했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은 수이댐에게 쪽지 한 통을 남겼다. 최근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니, 세입자들과 피보호자들의 행실을 각별히 주의 깊게 살피라는 내용이었다.

6월이 되자 결혼식이 열렸고, 온 동네가 들썩였다. 정오 무렵 플랫부시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떠 있었다. 오래된 네덜란드식 교회 근처 도로에는 차양막이 문 앞부터 길가까지 길게 드리워졌고, 깃발을 단 자동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수이댐 가문과 게릿슨 가문의 결합만큼 화려하고 규모가 컸던 지역 행사는 전무했다. 신랑 신부를 배웅하며 커나드 부두까지 따라간 일행은, 아주 세련된 부류까지는 아닐지언정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이들이 모인 견실한 모임이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작별의 인사가 오갔다. 거대한 여객선이 긴 부두를 천천히 벗어났다. 배는 서서히 머리를 바다 쪽으로 돌린 뒤 예인선을 떼어내고, 구세계의 경이로운 풍경들이 기다리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밤이 되자 여객선은 외항을 완전히 벗어났고, 밤늦도록 깨어 있던 승객들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바다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떠돌이 증기선이 먼저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비명 소리가 먼저 들렸는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아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겠지만, 그런 것을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비명은 수이댐의 선실에서 터져 나왔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선원은 만약 그 자리에서 즉시 미쳐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현장의 끔찍한 광경을 말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다. 그는 첫 희생자들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붙잡혀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배 안을 실성한 듯 헤집고 다녔다.

선실에 들어와 잠시 후 불을 켠 선박 의사는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나중에 체파첫에서 멀론과 서신을 주고받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교살, 즉 목을 졸라 죽인 살인이었다. 하지만 수이댐 부인의 목에 남은 발톱 자국이 남편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하얀 벽 위로 혐오스러운 붉은빛으로 한순간 번뜩였던 어떤 글귀에 대해서도 말이다.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옮겨 적은 그 글귀는, 공포스러운 칼데아 문자로 쓰인 "LILITH"라는 단어 바로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수이댐의 경우, 적어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알아낼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었을 뿐이다.

의사는 멀론에게 자신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확언했다. 불을 켜기 직전, 열려 있던 현창에는 잠시 동안 기묘한 인광이 서려 있었고, 창밖의 밤공기 속에는 희미하고 지옥 같은 낄낄거림이 메아리치는 듯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었다. 의사는 자신이 여전히 제정신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다음에는 화물선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 한 척이 떠나오더니, 장교 복장을 한 검고 무례한 불한당 무리가 잠시 멈춰 선 커너더 호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수이댐을 찾거나, 혹은 그의 시신이라도 가져가려 했다. 그들은 수이댐의 여정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선장의 갑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실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보고와

화물선에서 몰려든 사내들의 요구가 뒤섞인 탓에, 아무리 지혜롭고 침착한 선원이라 해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흑인을 연상시키는 가증스러운 입을 가진 아랍인 우두머리가 더럽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선장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로버트 수이댐의 서명이 적혀 있었고, 다음과 같은 기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에게 갑작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죽음이 닥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나 자신이나 내 시신을 이 편지를 가져온 자와 그 일행의 손에 넘겨주길 바란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명은 나중에 해도 좋다. 지금은 제발 나를 저버리지 말아다오.

로버트 수이댐.

선장과 의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의사가 선장에게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다. 결국 두 사람은 어찌할 도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이댐의 선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의사는 문을 열고 기이한 선원들을 들여보내며 선장이 곁눈질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긴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짐을 짊어지고 줄지어 나갈 때까지 의사는 차마 숨을 편히 내뱉지 못했다. 그 짐은 침대 시트로 꽁꽁 싸여 있었는데, 의사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선원들은 짐을 덮은 천을 들추지 않은 채, 어떻게든 그것을 배 밖으로 옮겨 자신들의 화물선으로 실어 날랐다.

커너더 호가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의사와 선박 장례사가 수이댐의 선실을 찾아가 마지막 예우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의사는 다시 한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야만 했다.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장례사가 왜 수이댐 부인의 피를 전부 뽑아냈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그러지 않았다고 굳이 밝히지 않았다. 또한 선반 위 빈 병들이 놓인 자리나, 병 안의 내용물을 급히 비워낸 흔적이 역력한 싱크대의 악취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그 사내들이—그들이 인간이긴 했다면 말이지만—배를 떠날 때, 그들의 주머니는 끔찍할 정도로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두 시간 후, 세상은 라디오를 통해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VI

그날 밤, 나는 수이댐의 저택에서 겪은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것은 단순히 기괴한 의식이나 사악한 모임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심연에서 기어 올라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근원적인 악의 현신이었다. 수이댐의 저택 안에서 벌어지던 그 광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 도덕적 질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어둠 속에서 일렁이던 기묘한 형체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울음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그 불쾌하고 비릿한 냄새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며 내 정신이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 내면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 레드 훅의 그 어두운 골목길과 수이댐의 저택에서 보았던 그 환영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눈을 감으면 그 기괴한 형체들이 다시금 눈앞에 아른거리고, 귀를 기울이면 심연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불길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세워둔 이 견고한 벽 뒤에는,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가 된 거대하고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레드 훅의 어둠 속에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그해 6월의 어느 저녁, 바다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으나 멀론은 레드 훅의 골목 사이에서 매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 전체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스며든 듯했다. 무언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주민들은 파커 플레이스에 있는 교회 무도회장과 주택가 주변으로 기대 섞인 눈빛을 하며 모여들었다. 방금 전 고와너스 방향의 거리에서 푸른 눈을 가진 노르웨이 출신 아이들 세 명이 실종되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강인한 바이킹 후예들 사이에서는 이미 폭도들이 결성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멀론은 지난 몇 주 동안 동료들에게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자고 거듭 촉구해 왔다. 더블린 출신 몽상가의 추측 따위보다 훨씬 명백한 정황에 움직인 동료들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오

늘 저녁에 느껴진 불안과 위협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정 무렵, 세 곳의 경찰서에서 모집된 급습대가 파커 플레이스와 그 주변 지역으로 들이닥쳤다.

문들은 부서졌고, 도망치던 자들은 체포되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는 기괴한 무늬의 예복을 입거나 주교관을 쓴,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무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쏟아져 나왔다. 혼란스러운 난전 속에서 많은 물건을 놓치고 말았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구멍 속으로 물건들을 급히 던져버린 데다, 갑자기 피어오른 자극적인 향의 냄새가 불길한 악취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방에는 튀긴 핏자국이 가득했다. 멀론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는 화로나 제단을 볼 때마다 몸서리쳤다.

그는 동시에 여러 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러다 한 전령으로부터 퇴락한 무도회장 교회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수이댐의 지하 거처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멀론은 그곳에 분명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오컬트 학자가 그토록 명백하게 중심이자 지도자로 군림했던 그 광신도 집단의 흔적이 말이다. 그는 실로 큰 기대를 품고 퀴퀴한 방들을 샅샅이 뒤졌다. 방 안에는 희미하게 시체 썩는 냄새가 감돌았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진 기묘한 책들과 도구들, 금괴, 그리고 유리 마개가 꽂힌 병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던 중, 마르고 흑백이 섞인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발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발을 걸었다. 그 바람에 붉은 액체가 절반쯤 담긴 비커가 넘어졌다. 충격은 상당했다. 멀론은 오늘날까지도 그때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고양이를 떠올린다. 기괴하게 변형되고 뒤틀린 모습으로 황급히 달아나던 그 고양이의 형상을.

이윽고 잠긴 지하실 문이 나타났고, 문을 부술 만한 것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 근처에 놓인 묵직한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의자의 단단한 좌판이라면 고풍스러운 문짝 정도는 충분히 부술 수 있을 듯했다. 결국 문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점차 벌어졌고, 마침내 문 전체가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문이 열린 것은 안쪽이 아니라 반대편에서였다. 문틈 사이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악취를 머금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으며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아닌 기괴한 흡입력이 들이닥쳤다. 그 힘은 마치 의지를 가진 생물처럼 마비된 형사의 몸을 칭칭 휘감더니, 그를 틈새 너머로 끌고 들어갔다. 형사는 속삭임과 통곡, 그리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휘몰아치는 끝 모를 공간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물론 꿈이었다. 전문가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고, 그에게도 반박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다. 사실 그는 차라리 꿈이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낡은 벽돌 슬럼가와 이질적인 외국인들의 어두운 얼굴들이 영혼을 이토록 깊게 파고들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당시의 일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한 현실이었다. 밤의 어둠에 잠긴 지하 묘지, 거대한 아케이드, 그리고 지옥에서 튀어나온 듯한 반쯤 형체를 갖춘 괴물들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 괴물들은 거대한 몸집으로 침묵 속에

성큼성큼 걸어 다니며, 먹다 남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 먹잇감의 남은 조각들은 자비를 구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미친 듯이 웃어댔다. 향내와 부패한 악취가 역겨운 화음을 이루며 뒤섞였고, 검은 공기 속에는 눈을 가진 형체 없는 정령들이 구름처럼 흐릿하고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떠다녔다.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는 끈적한 물이 오닉스 부두를 때리고 있었고, 한때는 날카로운 작은 종소리가 떨리듯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수면 위로 나타나 해안으로 기어 올라온, 빛을 내는 벌거벗은 괴생명체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에 화답하는 듯했다. 괴물은 검은 땅 위에 놓인 황금빛 조각 받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그곳에 웅크린 채 비열한 눈빛을 번뜩였다.

끝을 알 수 없는 밤의 거리들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듯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이곳이 도시를 병들게 하고 삼켜버릴 전염병의 뿌리인 것만 같았다. 온 나라를 뒤섞인 역병의 악취로 집어삼킬 재앙의 근원 말이다. 이곳에 우주적 죄악이 침투했다. 불경한 의식 속에서 곪아 터진 죄악은, 우리 모두를 무덤조차 감당하지 못할 기괴한 곰팡이 덩어리로 부패시킬 죽음의 비웃는 행진을 시작했다.

사탄은 이곳에서 바빌론의 궁정을 열었고, 인광을 내뿜는 릴리스의 나병 든 사지들은 순결한 어린 시절의 피로 씻겨 나갔다.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는 헤카테를 찬양하며 울부짖었고, 머리 없는 달의 괴물들은 마그나 마테르를 향해 울어댔다. 저주받은 가느다란 피리 소리에 맞춰 염소들이 뛰어올랐으며, 에기파누스들은 부어오른 두꺼비처럼 뒤틀린 바위 위에서 기형적인 판들을 끝없이 뒤쫓았다. 몰록과 아스타로트 또한 이곳에 있었다. 모든 저주의 정수인 이 공간에서는 의식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고, 인간의 상상력은 악이 빚어낼 수 있는 모든 공포의 영역과 금지된 차원의 풍경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봉인되지 않은 밤의 심연으로부터 쏟아지는 이러한 습격 앞에 세상과 자연은 속수무책이었다. 증오스러운 악마의 지식이 담긴, 가득 차서 넘칠 듯한 상자를 든 현자가 나타나 공포의 발푸르기스의 밤을 불러들였을 때, 그 어떤 징조나 기도도 이 참혹한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갑자기 환상들 사이로 실재하는 빛줄기가 번뜩였고, 멀론은 죽어 있어야 할 것들이 내뱉는 신성 모독적인 소음 사이로 노 젓는 소리를 들었다. 선수에 등불을 단 배 한 척이 시야 안으로 빠르게 끼어들더니, 미끈거리는 돌로 된 부두의 철제 고리에 묶였다. 곧이어 침구에 싸인 길쭉한 짐을 든 검은 사내들이 배에서 쏟아져 나왔다. 사내들은 그 짐을 조각된 황금 받침대 위에 놓인, 빛을 내뿜는 벌거숭이 형체로 가져갔다. 그러자 그 형체는 낄낄거리며 침구를 더듬었다. 사내들이 싸개를 풀어헤치자, 짧은 수염과 헝클어진 백발을 가진 비대한 노인의 괴사한 시신이 받침대 앞에 똑바로 세워졌다. 빛을 내뿜는 형체는 다시 한번 낄낄거렸다. 사내들은 주머니에서 병들을 꺼내 그 형체의 발에 붉은 액체를 발랐고, 이어서 그 병들을 형체에게 건네 그 내용물을 마시게 했다.

그때였다. 끝없이 뻗은 아케이드 거리 너머에서, 신성모독적인 오르간의 악마 같은 덜컹거림과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조롱 섞인 저음이 갈라지고 냉소적으로 울려 퍼지며, 마치 숨이 막히는 듯 웅웅거렸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움직이던 모든 존재가 전율했다.

악몽 같은 무리는 즉시 의식 행렬을 이루더니, 소리 죽여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염소와 사티로스, 아이기판, 인큐버스, 서큐버스, 레무르, 뒤틀린 두꺼비와 형체 없는 정령, 개 얼굴을 한 울부짖는 괴물과 어둠 속을 소리 없이 걷는 자들까지. 그 무리는 조각된 황금 왕좌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가증스럽고 빛을 내는 벌거숭이 존재가 이끌고 있었다. 그 존재는 이제 유리알 같은 눈을 한 거구의 노인의 시체를 팔에 안은 채 오만하게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기이한 검은 피부의 사내는 행렬의 뒤편에서 춤을 추었고, 전체 행렬은 디오니소스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뛰고 날뛰었다.

멀론은 정신이 혼미하고 몽롱한 상태로, 자신이 이 세상 혹은 그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지조차 의심하며 그들을 몇 걸음 뒤쫓다 비틀거렸다. 그러다 그는 몸을 돌려 비틀거리더니,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위로 쓰러졌다. 악마의 오르간이 계속해서 개굴거리는 소리를 내는 가운데, 멀론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다. 미친 행렬이 내는 울부짖음과 북소리, 딸랑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주문 소리와 충격적인 개굴거림이 희미하게 의식 속을 파고들었다. 이따금 의식을 치르는 듯한 통곡이나 신음이 검은 아케이드 너머에서 그에게 흘러 들어왔다. 그러다 마침내, 그 무도회장 교회의 설교단 위에 적혀 있던 그 끔찍한 그리스어 주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 밤의 벗이자 동반자여, 개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기뻐하는 자여(이때 기괴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흘려진 피를 탐하는 자여(이때

이름 모를 소리들이 병적인 비명과 뒤섞였다). 무덤 사이, 그림자들 속을 방랑하는 자여(이때 휘파람 같은 탄식이 들려왔다). 피를 갈망하며 필멸자들에게 공포를 몰고 오는 자여(수많은 목구멍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고르고(Gorgo)여!(응답하듯 반복되었다) 모르모(Mormo)여!(황홀경에 빠진 듯 반복되었다)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달이여!(탄식과 플루트 선율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제물을 굽어살피소서!"

주문이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쉿쉿거리는 소음이 금이 간 베이스 오르간의 괴상한 울림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이어 수많은 이가 동시에 숨을 들이켜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짖거나 울부짖는 듯한 말들이 뒤섞여 소란스럽게 터져 나왔다.

"릴리스, 위대한 릴리스여, 신랑을 맞이하라!"

비명과 소란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언가 급히 달려오는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멀론은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일으켜 세워 그쪽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희미해졌던 지하 묘지의 빛이 다시금 미세하게 밝아졌다. 그 악마 같은 빛 속에서, 결코 달아날 수도, 느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가 형체를 드러내며 도망치듯 움직였다. 그것은 눈동자가 유리알처럼 탁하고 괴저가 진행된, 비대한 노인의 시체였다. 방금 끝난 의식의 지옥 같은 마법에 생동력을 얻은 시체는 이제 아무런 지지대 없이도 스스로 움직였다. 그 뒤를 이어 조각된 받침대 위에 있어야 할, 벌거벗은 채 낄낄거리는 인광의 괴물이 뒤쫓았고, 그보다 더 뒤쪽에서는 검

은 피부의 사내들과 지각을 가진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무리 지어 헐떡이며 따라붙었다.

시체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며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듯했다. 썩어가는 근육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강렬한 강령술적 의미를 지닌 황금빛 조각 받침대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뒤따르던 무리가 광적인 속도로 힘을 쏟아붓는 사이, 시체는 곧 목적지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었다. 로버트 수이댐이었던 그 시체는 힘을 쥐어짜 마지막 질주를 감행했다. 힘줄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고통 속에 비대한 몸뚱이가 젤리처럼 흐물거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으나, 시체는 목적을 달성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시체가 밀어붙인 힘은 엄청났고, 그 힘은 끝까지 버텨주었다. 밀어붙이던 시체가 진흙 같은 부패 덩어리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가 밀친 받침대는 비틀거리더니 오닉스 받침대 위에서 기울어졌다. 결국 받침대는 아래의 걸쭉한 물속으로 곤두박질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 밑바닥 타르타로스의 심연으로 무겁게 가라앉으며 조각된 황금빛 잔광을 마지막으로 내뿜었다. 그 찰나, 멀론의 눈앞에서 그 모든 공포스러운 광경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온 우주의 악을 지워버릴 듯한 굉음 속에서, 멀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VII

그날 밤, 나는 레드 훅의 그 불길한 거리에서 토머스 멀론을 처음 만났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보였다.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기묘

한 기운을 느꼈다. 멀론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브루클린의 그 구석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어떤 거대한 악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로버트 수이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이댐은 겉보기에는 품위 있는 신사였으나, 그 이면에는 심연과도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멀론의 말에 따르면, 수이댐은 레드 훅의 그 기괴한 군상들과 결탁하여 인류가 결코 마주해서는 안 될 금단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멀론은 그 의식이 완성되는 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가 묘사하는 장면들은 너무나 생생하고도 소름 끼쳤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뒤섞인 악취, 기괴한 언어로 속삭이는 정체 모를 존재들, 그리고 달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행위들. 멀론의 눈동자에는 광기와 공포가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발을 들인 곳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심연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멀론이 수이댐의 죽음과 해상 이송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온전히 겪었던 그 꿈은, 이후 벌어진 사건의 기이한 정황들과 묘하게 맞물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그 꿈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파커 플레이스에 있던 세 채의 낡은 집들은 분명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약탈자 절반과 죄수 대부분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던 순간, 겉으로는 아무

런 징후도 없이 집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 있던 이들 중 다수가 즉사했다. 오직 지하실과 지하 저장고에 있던 이들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멀론은 운 좋게도 로버트 수이댐의 집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다. 실제로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밤처럼 검은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멀론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는 부패와 뼈가 기괴하고 끔찍하게 뒤섞인 덩어리가 놓여 있었는데, 치아 상태를 통해 수이댐의 시신임이 확인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명백했다. 밀수꾼들의 지하 운하가 바로 이곳으로 이어져 있었고, 수이댐을 배에서 빼돌린 자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정작 그 범인들은 끝내 발견되지도, 신원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선상 의사는 아직까지 경찰이 내놓은 확정적 결론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수이댐은 분명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운하 외에도, 인근에는 지하 통로와 터널이 여러 개나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저택에서 무도회장 겸 교회 지하의 납골당으로 통하는 터널도 존재했다. 이 납골당은 교회의 북쪽 벽에 있는 좁고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의 방들에서는 기괴하고도 끔찍한 것들이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오르간이 놓여 있었고, 나무 의자들이 놓인 거대한 아치형 예배당과 기묘한 형상의 제단도 있었다. 벽면에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중 열일곱 개의 방에

서는 차마 말로 다 하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중에는 기이한 모습의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네 명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은 빛에 노출된 직후 곧 죽고 말았는데, 의사들은 차라리 그것이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했다. 현장을 조사했던 사람들 중 멀론을 제외하고는, 옛 델리오가 던졌던 그 음산한 질문을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An sint unquan daemones incubi et succubae, et an ex tali, congressu proles nasci queat?"

운하를 매립하기 전, 준설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크기의 톱질된 뼈와 쪼개진 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유괴 사건의 유행은 분명히 그 근원지까지 추적된 셈이었다. 비록 살아남은 포로 중 법적으로 이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은 단 두 명뿐이었지만 말이다. 이들은 실제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고,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멀론이 주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던, 조각된 황금 받침대 혹은 왕좌는 끝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수이댐의 저택 아래 운하의 한 지점이 준설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새 집들의 지하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입구는 막히고 시멘트로 봉인되었으나, 멀론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을지 자주 추측하곤 한다.

경찰은 위험한 광인 집단과 외계 밀수꾼들을 소탕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쿠르드인들을 연방 당국에 넘겼다. 이들은 추방되기 전, 악마를 숭배하는 예지디 부족의 일원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떠돌이 화물선과 그 선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냉소적인 형사들은 그 배가 벌이는 밀수와 밀주 사업을 다시 한번 소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멀론은 이 형사들이 수많은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항과 사건 전체가 암시하는 모호함을 보고도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두고, 그들의 시야가 참으로 좁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신문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적이다. 신문들은 우주의 심장부에서 온 공포를 선포하는 대신, 그저 기괴한 자극만을 쫓으며 사디스트 사이비 종교를 조롱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멀론은 이제 체파첫에서 침묵을 지키며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시간이 흘러 이 끔찍한 경험이 현재의 현실에서 벗어나, 그저 그림처럼 아름답고 반쯤 신화적인 먼 과거의 일로 서서히 옮겨가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로버트 수이댐은 그린우드 묘지에서 자신의 신부 곁에 잠들어 있다. 기이한 방식으로 유골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다. 친척들은 이 사건 전체가 이토록 빠르게 망각 속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 오히려 안도하며 감사해하고 있다.

학자가 레드 훅의 공포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인 증거로 밝혀진 적이 없다. 그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된 바가 없

으나, 수이댐 가문은 후세 사람들이 그를 그저 해롭지 않은 마법과 민속학을 취미로 삼던 온화한 은둔자로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레드 훅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수이댐은 왔다가 떠나갔고, 공포는 모여들었다가 흩어졌다. 하지만 낡은 벽돌집 사이, 잡종들이 뒤엉킨 그곳에는 어둠과 불결함의 악령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정체 모를 용무를 띤 무리들은 여전히 배회하며 행진한다. 불빛과 기괴한 얼굴들이 이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지나간다.

태고의 공포는 천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으며, 어둠의 숭배 집단은 데모크리토스의 우물보다 더 깊은 신성모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짐승의 영혼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승리한 듯 군림한다. 눈이 흐릿하고 곰보 자국이 가득한 레드 훅의 청년들은 여전히 심연에서 심연으로 줄지어 이동하며 노래하고, 저주하고, 울부짖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물학적 맹목의 법칙에 떠밀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움직인다.

옛날부터 그랬듯, 육지 쪽에서는 레드 훅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 이미 술과 그보다 더 추잡한 것들이 오가는 특정 거점들을 향해, 지하로 흐르는 새로운 운하가 뚫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무도회장으로 쓰이는 그 교회는 이제 거의 무도회장이나 다름없다. 밤이면 창가에 기괴한 얼굴들이 나타나곤 한다. 최근에는 한 경찰관이, 가득 차 있던 지하 납골당이 다시 파헤쳐졌으며 그 목적 또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류와 역사보다

도 오래된 독물에 맞서 싸우려는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시아의 유인원들조차 저런 공포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암세포는 썩어가는 벽돌 더미 속에 은밀히 숨어든 채 안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멀론이 이유 없이 몸서리치는 것은 아니다. 불과 며칠 전, 한 경관이 계단 밑 어두운 그늘에서 거무스름한 피부에 눈을 가늘게 뜬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방언을 가르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경관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노파가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함을 느꼈다.

"오, 밤의 벗이자 동반자여. 개들의 울부짖음과 흘려진 피를 기뻐하는 자여. 무덤 사이 그림자 속을 헤매며, 피를 갈망하고 필멸자들에게 공포를 몰고 오는 자여. 고르고, 모르모,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달이여. 우리의 제물을 너그러이 굽어살피소서!"